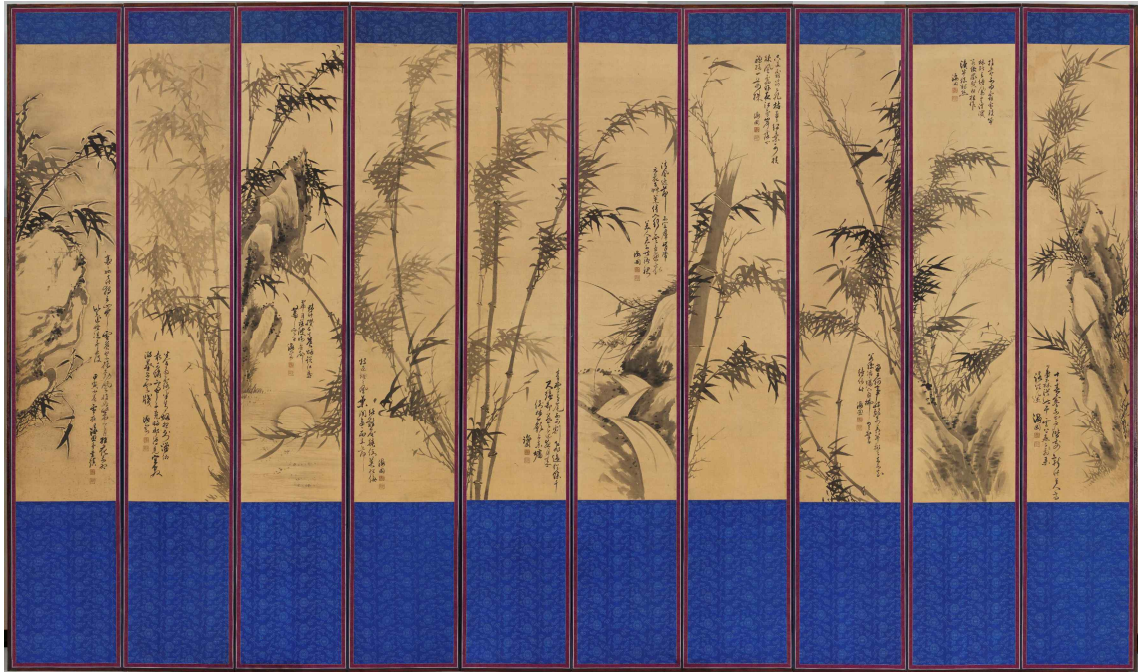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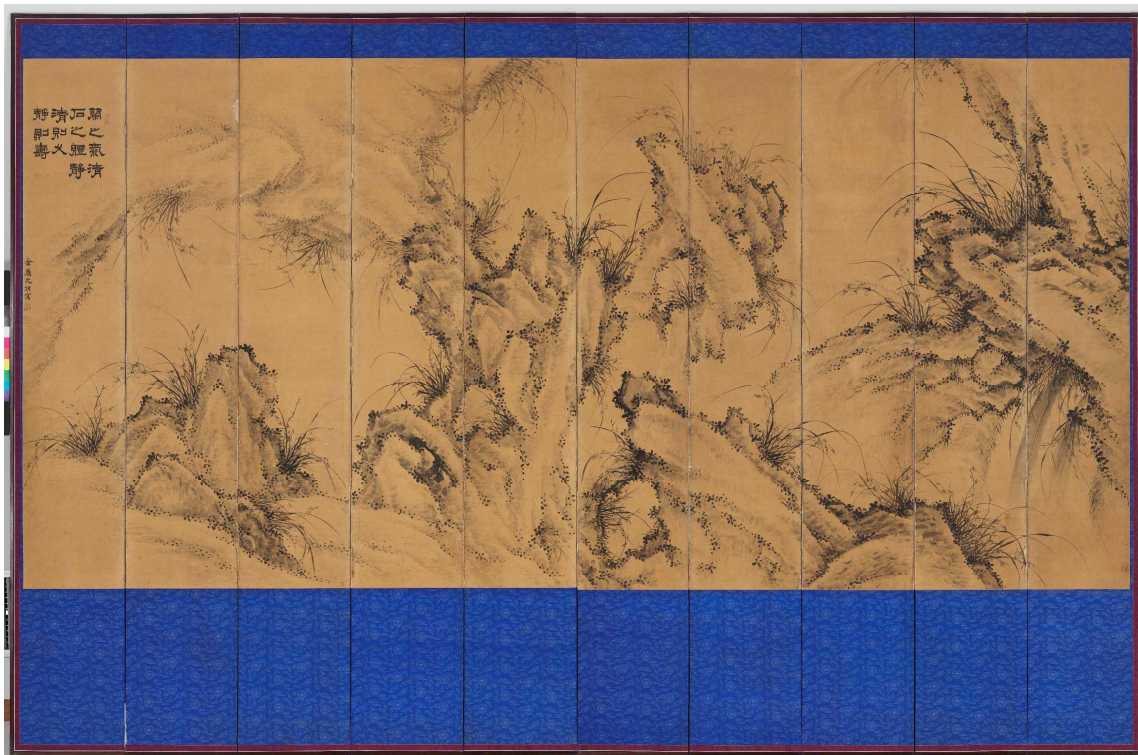


사 진 자 료



<김규진(1868~1933), 대나무 바위 그림 병풍 (죽석도병), 20세기 초>



<김응원(1855~1921), 난초 바위 그림 병풍(난석도병), 20세기 초>



<이하응(1820~1898), 난초 바위 그림(석란도), 1892년>